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4. 4. 26.(금) 07:00 ~ 2024. 4. 28.(일) 22:00
- 상담건수¹⁾: 990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4명)

-프로그램명 : 「한국인의 밥상」

-방송일시 : 2024. 4. 25.(목) 1TV (19:40-20:30)

KBS 방송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KBS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지만, 본인이 요리 관련 방송을 좋아해서 「한국인의 밥상」을 특히 좋아한다. 무엇보다 최불암 선생님의 내레이션과 진행이 너무 좋다.

○ 방송 제언(2명)

-프로그램명 : 「아침마당」 ‘행복한 금요일 쌍쌍파티’

-방송일시 : 2024. 4. 26.(금) 1TV (08:25-09:30)

매주 금요일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해왔다. 우리나라 중심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KBS 1TV에서, 그것도 중요한 오전 시간대에 연예인들이 출연해 사생활을 얘기하는 방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자기들끼리 노닥거리다가 출연료를 받아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심채널로서 중요한 시간대에 신사적이고 교양적인 내용을 방송해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6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990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565	14	-	-	411	990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514	310	18	-	-	148	990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206	784	-	990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796	3	71	120	990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p>○ 「중계방송 제1회 순직 의무군경의 날 기념식」</p> <p>- 편성 호평</p> <p>【보 도】</p> <p>○ 「KBS 뉴스 12」</p> <p>- 보도 호평</p> <p>【시사·교양】</p> <p>○ 「한국인의 밥상」</p> <p>- 방송 호평</p> <p>○ 「아침마당」</p> <p>- 방송 제언</p> <p>○ 「1000회 특집 남북의 창」</p> <p>- 방송(소재) 추천</p> <p>○ 「이슈 픽 쌤과 함께」</p> <p>- 방송 호평</p> <p>【라디오】</p> <p>○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p> <p>- 방송 호평</p> <p>○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p> <p>- 선곡 제언</p>	<p>【방 송】</p> <p>○ 「전국노래자랑」</p> <p>- ‘진행자’ 불만 45건</p> <p>○ 「6시 내고향」</p> <p>- ‘블루베리’ 연락처 문의 44건</p> <p>○ 「2TV 생생정보」</p> <p>- ‘한우 떡갈비’ 연락처 문의 25건</p> <p>○ 「동네 한 바퀴」</p> <p>- ‘주꾸미’ 연락처 문의 22건</p> <p>○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p> <p>- ‘재방송 편성’ 문의 20건</p> <p>【기 술】</p> <p>○ 「난시청」 문의 3건</p> <p>【경 영】</p> <p>○ 「홈페이지」 문의 27건</p> <p>○ 「프로그램 구입」 문의 23건</p> <p>○ 「전화교환」 문의 17건</p> <p>○ 「주차」 문의 2건</p> <p>○ 「수신료」 문의 1건 외 1건</p> <p>【기 타】</p> <p>○ 한전 문의사항 포함 120건</p>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편성 호평	<p>○ 「중계방송 제1회 순직 의무군경의 날 기념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4. 26.(금) 1TV (10:00-10:40) - KBS를 항상 시청한다. 이날 ‘제1회 순직 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너무 뜻깊게 시청했다. 타 방송사에선 편성하지 않았는데, KBS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좋은 방송사가 되길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보 도]	
보도 호평	<p>○ 「KBS 뉴스 12」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고? [뉴스in뉴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4. 25.(목) 1TV (12:00-13:00) - 이날 12시 뉴스 잘 시청했다. 고갈되는 국민연금 체계를 제대로 잘 다뤄주려고 노력한 보도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진행을 선보여준 앵커에게도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시사 · 교양]	
방송 호평	<p>○ 「한국인의 밥상」 (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4. 25.(목) 1TV (19:40-20:30) - KBS 방송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KBS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지만, 본인이 요리 관련 방송을 좋아해서 「한국인의 밥상」을 특히 좋아한다. 무엇보다 최불암 선생님의 내레이션과 진행이 너무 좋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방송 제언	<p>○ 「아침마당」 ‘행복한 금요일 쌍쌍파티’(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4. 26.(금) 1TV (08:25-09:30) - 매주 금요일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해왔다. 우리나라 중심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KBS 1TV에서, 그것도 중요한 오전 시간대에 연예인들이 출연해 사생활을 얘기하는 방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자기들끼리 노닥거리다가 출연료를 받아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심채널로서 중요한 시간대에 신사적이고 교양적인 내용을 방송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방송(소재) 추천	<p>○ 「1000회 특집 남북의 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4. 27.(토) 1TV (07:50-08:30) -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좋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예전에 서유럽의 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 집과 집 사이에 국경선이 있었다. 현재 남북은 분단되어 있으므로 국경선에 치열한 분위기가 있다. 「남북의 창」에서 유럽 국가들의 국경선을 종종 소개한다면, 대치 상황으로만 여겨지는 국경선의 개념이 조금은 이완되지 않을까 싶고, 언젠가 해야 할 통일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질 것 같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방송 호평	<p>○ 「이슈 픽 쌤과 함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일) (19:10-20:10) - KBS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잘 시청하고 있는 애청자이다. 특히 「이슈 픽 쌤과 함께」가 너무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청자 의견이 꼭 전달되길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방송 호평	<p>○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체혈리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4. 26.(금) 1R (09:05-10:53) - ‘체혈리즘’ 코너에 이윤의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소개됐다. 방송을 들어보니 너무 좋은 기업인 것 같아 본인도 동참하고 싶다. 해당 기업에서 판매하는 옷이라도 한 벌 구입한다면, 그게 동참이라고 생각한다. 방송 잘 청취했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선곡 제언	<p>○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R (월-일) (14:00-16:00) - KBS 2라디오를 청취하는 다수의 청취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오전 9시에 방송되는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들었던 가수의 곡을, 다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에서 들려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오래된 가요는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들려주고,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에서는 최신곡을 들려주는 식으로 제작진들이 선곡에 조금 더 신경써주면 좋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